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7월 22일(주일) 제1206호

CGNTV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ICVM 은상 수상

‘크라운어워즈’ 해외영화부문 한국작품 유일
한 해 관객 12만 명, 역대 기독교 다큐영화 흥행 2위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미국 내슈빌에서 열린 ‘ICVM 크라운어워즈’에서 해외영화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크라운어워즈는 ICVM(International Christian Visual Media Association)에서 매년 주최하는 국제 기독교콘텐츠 시상식이다. 해외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18개 부문에서 우수작을 선정한다.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한국작품으로는 유일하게 결선에 올라 은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4월 개봉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서서평(1880~1934) 선교사의 일대기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다.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에 의료선교사로 파송돼 평생 소박한 삶을 살면서 조선과 조선인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다. 이일학교(현 한일장신대학교), 조선간호부회(현 대한간호협회), 여전도연합회 등을 세우기도 했다.

CGNTV는 이름도 빛도 없이 고아와 과부, 한센병 환자 등 가장 낮은 자들을 섬겼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조명하고, 그의 섬김과 사랑을 되새기고자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제작했다. ‘성공이 아닌 섬김’을 강조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담담하면서도 절절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크리스천들은 물론 아직 예수를 모르는 관객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다. 기독교 다큐영화로는 이례적으로 한 해 누적 관객 수 12만 명을 기록했고, 역대 한국 기독교 다큐영화 흥행 순위 2위에 올라 있다. 미주 지역에서도 개봉돼 2만여 명이 관람하기도 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3차 접수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주대학교 대강당

대학청년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3차 접수를 8월 1일까지 받는다.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에 참가를 원하는 청년들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집회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Like Jesus(갈 2:20)’를 주제로 막 오른다. 이번 집회는 메인강의, 주제강의, 선택식 특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메인강의에서는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 ‘임재’, 하정완 목사(꿈이있는교회) ‘복음’, 이용규 선교사(내려놓음) 저자) ‘청년’, 이상억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자존감’,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선교’, 임은미 선교사(KOSTA 강사) ‘성령’, 정진호 교수(평양과학기술대학) ‘비전’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주제강의에서는 배상민 교수(KAIST 산업디자인학과)가 ‘일터

를 주제로 강의한다. 선택식 특강에서는 이성교제(김숙경 간사)와 이단(김강림 전도사) 관련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게스트도 풍성하다. 히스팝, 매트블랙워십, CCM 가수 김도현, 지미선, 노상신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서울과 전주 대학교를 오가는 셔틀도 운행된다.

문의: 02-3215-3745

홈페이지: www.theone.or.kr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온누리 목회자 회개 금식기도회

이재훈 담임목사 8월 5일 복귀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뼈를 깎는 통회(痛悔)의 심정으로 회개와 금식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온누리 목회자 회개 금식기도회’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전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료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금식기도에 힘쓰고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목회자는 온

세상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며 “목회자의 생각, 입, 눈, 발걸음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한편 이재훈 담임목사는 8월 첫째 주일(5일) 복귀한다. 당초 올해 8월까지 안식일을 갖기로 했었는데 그보다 한 달 빨리 복귀해 목회와 사역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새해 목표로 세우는 것이 ‘성경일독’이다. 그런데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바빠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재미가 없어서, 끈기가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실패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성경필사(聖經筆寫)’는 어떨까? 읽는 것도 어려운데 쓰는 것은 오죽할까? 오늘의 주인공은 그 어렵다는 성경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덟 번이나 필사한 김정숙 권사(85세, 남양주 온누리교회)다. 김 권사는 19년 동안 성경필사를 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다. 김 권사가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자주 만나는 것 때문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자주 만나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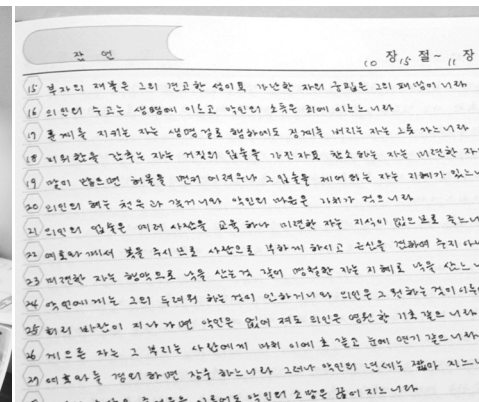
19년 동안 성경필사 여덟 번 한 김정숙 권사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단출한 방에 책상과 의자, 책장이 놓여 있다. 그 방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내용물들은 결코 단출하지 않다. 책장 빼곡히 수십 권의 성경필사 노트가 꽂혀 있고, 책상에는 두툼하고 큰 성경책과 노트, 수백 자루의 다 쓴 볼펜들이 굴러다니고 있다. 이 방은 19년 동안 8번이나 성경필사를 한 김정숙 권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원래 다 쓴 볼펜이 더 많았는데 중간에 버렸더니 이거밖에 없네요”

그 해사함이 실력을 감춘 무덤고수 같았다. 김 권사는 매일같이 이 책상에 앉아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들여 필사한다.

“제가 불잡을 거라곤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필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필사할 것을 고백하는 김정숙 권사(좌), 김 권사가 쓴 필사 노트(우).

남편의 마지막 소원

웬만한 성도들도 엄두가 안 나는 성경필사를 8번이나 한 김 권사는 골수 불교신자였다. “우리 부부는 108배를 할 정도로 내로라하는 불교신자였어요.”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집안의 경제적인 몰락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그녀의 재산을 건져 가지고 그 대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남편이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며 선거에 나갔어요. 당선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떨어졌어요. 그 충격 때문인지 남편이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혼란한 시기, 정치판에 뛰어들 게 화근이었다. 1970년대는 금권선거(金權選舉, 돈의 위력을 이용한 선거)가 판을 치던 시절이었다. 김 권사의 남편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선거를 치르면서 재산을 홀라당 날려버렸다. 설상가상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때부터 가난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당시 막내아들이 세살이었어요. 남편은 병들어 누워있지, 그나마 있던 재산은 온데간데 없고 빚만 남았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가 친척들도 떠나버리더라고요. 혹시나 자신들한테 피해가 갈까봐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오묘했다. 집안의 위기가 김 권사 가족을 교회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몸도 성치 않은 남편이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받고 싶다고요. 정말이지 너무 미워서 바로 차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쩌랴.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김 권사는 동네 쌀가게 주인을 찾아갔다. 사람들이 쌀가게 주인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쌀가게 주인이 그 자리에서 택시를 불러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다. “기도합시다”라는 목사님의 그 한마디에 남편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물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대답했다.

“이미 용서 받았습시다.”

그렇게 남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남편은 매주 교회에 나갔다. 교인들이 남편을 업고 데리고 갔다. 아들과 딸은 아픈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나갔다. 남편이 처음 기도 받고 꼭 1년 뒤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런데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에 다닐 동안 김 권사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깟 하나님이 뭐가 대수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었다.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 셋을 둔 과부가 먹고 살기 위해 할 만한 일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별로 다르지 않았다. 서울로 올라온 김 권사 가족은 남의 집 문간방, 반지하방을 전전하면서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다. 지독한 가난 속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자녀들이 잘 자랐다. 속 썩이는 일도 없었

고 공부도 잘했다. 무엇보다 교회를 잘 다녔다.

“제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아이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라고 자그마치 10년을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결심했다

자녀들의 기도가 결국 하늘에 닿았다. 어느 날 아들이 김 권사에게 교회에 재미있는 구경이 있으니 가자고 했다. 평소 같으면 “너나 가라” 했을 텐데 그날따라 “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교회에 발을 내디뎠다. 그때가 1993년이었다. 말라비틀어진 김 권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다. 참으로 많이癒었다. 특히 이사야서 41장 9-10절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땅 끝에, 땅 모퉁이에 서있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단순한 문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주일예배는 물론 순예배, 교회에서 하는 성경공부란 성경공부는 다치는 대로 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995년 집사 안수를 받았고, 1997년 권사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고, 각종 예배와 기도 회에도 참석했지만 부족했다. 하루는 삭개오

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장면을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도 삭개오처럼 내가 올라갈 뽕나무를 잡아야겠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때부터 성경필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성경필사가 벌써 19년째가 되었다. 게다가 한 번도 하기도 힘든 필사를 무려 8번이나 했다. 정말 대단한 노력이 아닐 수 없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성경을 썼을 뿐이에요. 성경필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복 받으려고, 자식 잘 되게 해 달라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다는 김 권사의 열망이 참으로 순수했다. 그런 김 권사에게 요즘 근심이 생겼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이 좋지 않아서 필사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성경필사를 계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말씀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고 싶는데 말이지요.”

성경필사하고 싶다면?

성경은 총 66권(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다.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02절(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이다. 기자가 성경을 써보니 1시간 동안 잠깐 3장, 90절 정도를 썼다. 매일 하루 한 시간 동안 성경필사를 하면 346일(11개월)~396일(13개월)이면 성경 한 권을 필사할 수 있다. 성경필사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 시작하면 된다.



주일강단



손신국 목사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며 벌인 두 번째 잔치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묻고 그 대답을 중용했던 에스더의 소원을 말하기로 약속한 두 번째 잔치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왕에게 약속한 대로 자신의 소원을 말해야 하는 바로 그 운명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하수어로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합니다. 긴장감보다는 흥이 앞선 그런 자리입니다. 에스더는 상대방을 긴장시키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합니다. 왕이 술을 마신 후에 좋은 분위기에서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하고 묻습니다. 에스더의 대답에 온 시선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왕은 조금만 마음에 다시 한번 보상을 언급합니다. 그녀가 요구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공언합니다. 벌써 세 번째 약속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녀의 소원을 꼭 들어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세운 지략은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녀 혼자 왕과 하만 앞에서 담담하게 지략을 펼쳐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은 에스더와 모르드개, 유대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마치 감추어진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것임을 돌아볼 때 이 모든 일의 실제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함께 하십니다. 그녀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부여주십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최고의 두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세운 계획들을 실천해 갑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왕에게 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잘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상대할 대상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과 하만임을 에스더는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어로 왕을 쥐락펴락하던 큰 힘과 능력과 더불어 꾀에도 능한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하만의 요구대로 사랑하는 전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충동적이고, 하만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별 감정의 고리도 없는 유대민족 전체를 멸하는 조서를 하만이 요구해오자 큰 갈등 없이 인

장을 짊어 주는 등 언제 어느 때 하만의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에스더를 지금까지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오랜 망설임을 뒤로 하고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악한 하만의 음모가 에스더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악 간에 모든 일은 드러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차분히 나아갑니다. 왕의 큰 은총을 입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인 왕의 아내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왕후의 자리를 최대한 활용하며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아하수어로 왕의 아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에 왜 충실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가 긴 망설임 끝에 드디어 왕에게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중단시켜야 하고 왕이 내린 결정을 반복해야 하는 심히 어려운 요구사항입니다. 그녀는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에는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이 에스더에게 호의적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반전 될지 모르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다.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이라며 말을 시작합니다. 이 모임의 주관자가 왕이며 왕의 허락 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이라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에 선악 간의 판단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선과 악 간의 판단 주체가 왕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말은 왕은 절대로 선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어떤 악한 일이 있든지 왕과는 상관없는 일임을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조서에 왕이 깊이 개입되어 있기에 왕을 자극하지 않고, 왕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도면밀하게 일을 진행시킵니다. 에스더의 겸손하고 예의바른 모습이 왕을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왕이 자신의 말에 집중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왕이 자신에게 집중해 있음을 느끼며 소원을 말합니다.

에스더는 진지하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간절함에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

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겸손한 모습만으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겸손함과 더불어 간절하게 왕에게 호소합니다. 자신의 소원이 생명과 관련된 중요 사안임을 지적합니다. 이제 자신이 유대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생명을 걸고 자신의 뜻을 밝히는 그녀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과 자신도 유대인이기에 그 죽음에서 예외될 수 없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살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 ‘간절함’

에스더의 진지함과 간절함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은 자신의 규를 내밀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왕의 앞으로 나아가 소신을 밝히 드러냅니다.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지 않게 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는 잘못이 없고, 단지 왕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불충한 신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만이 그 악한, 불충한 신하임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화살이 왕이 아닌 하만에게로 향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왕에게 가는데 그 막대한 손해를 하만이 보충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하만이 악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신하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만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왕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에스더의 단호한 호소에 왕이 분노합니다. 에스더가 아닌 하만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신의 왕비를 죽이려했던 하만에게 분노합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악한 결정을 내리게 했던 하만에게 분노합니다. 그러고도 태연하게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뻔뻔한 모습에 분노합니다. 왕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잔치 자리를 잠시 떠납니다. 하만은 큰 영향력을 가진 명실상부한 2인자입니다. 왕이 가장 가까이 했던 신하입니다. 왕은 하만을 처벌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왕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하만이 에스더에게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고 빈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왕으로서의 체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왕이 에스더에게 세 번이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공언한 체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를 놓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왕은 무엇인가 결정을 내렸고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악한 하만은 손을 겨를 없이 패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악인의 길로 가면 그 끝은 필히 멸망입니다.

악인의 길과 악인의 길

아하수어로 왕이 생각을 정리하고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하만을 징계하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그가 어떤 징계를 받을지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왕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하만이 왕비인 에스더를 함부로 대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절대 권위에 도전한 일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잔치 자리로 돌아와 에스더와 하만을 바라봅니다. 하만은 그 시간 에스더 옆에 꿇어 앉아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만의 모습이 왕비를 폭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이 강한 아하수어로 왕은 자신의 잘못도 내재되어 있는 조서 문제가 아니라 하만 단독 범행인 왕비 폭행죄를 선언하고 사형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아하수어로 왕의 판단을 돕기 위한 도우미가 등장합니다. 내시 하르보나입니다. 하르보나가 나서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어 달기 위해 준비한 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왕은 그 나무에 하만을 매어 달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은 손 써볼 겨를도 없이, 아무 변명도 못해 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 보지도 못하고, 그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렇게 하만에 대한 처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유대인 멸절에 대한 조서 문제입니다. 최고의 권세가를 단번에 무너뜨린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기에 그 문제 또한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로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악한 포로출신의 부모도 없는 연약한 여자 에스더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악인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반면 악인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길로 치달았던 하만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롬 8:37).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대적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을 가다

동성애,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다

서울광장 뜨겁게 달군 ‘퀴어축제’ VS 반(反) 동성애 진영 대결 동성애자의 인권과 표현 자유라는 명목 하에 음란과 퇴폐만 난무

“하나님은 게이를 사랑하신다” VS “동성애는 죄악이다”, “우린 누구나 사랑할 권리가 있다” VS “거짓 인권에 속지 마라”

지난 14일, 시청 앞 서울광장. 올해로 19번째 ‘서울퀴어문화축제’ (이하 퀴어축제)가 열렸다. 이날 서울광장은 퀴어축제에 참가한 동성애자들(5만여 명)과 퀴어축제를 반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1만여 명)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작렬하는 퇴악별보다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도대체 퀴어축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곳에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 정현주, 권찬송 기자



퀴어축제 참가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현수물을 들고 있다. 이것이 퀴어축제의 본질이다.

퀴어축제에서 만난 사람과 사람들

퀴어축제에는 동성애자들만 참가한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퀴어축제에는 구경 나온 일반 시민, 동성애 자녀를 둔 부모,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자신의 아들이 성소수자라고 밝힌 A씨는 “아들이 어느 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고 나서 동성애자라고 고백했다”며 “충격적이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소리쳤다.

트랜스젠더 B씨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젠더 퀴어’라고 소개했다. 젠더 퀴어는 남성과 여성으로만 분류하는 성별에서 벗어난 종류의 성정체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독특한 성정체성의 종류에는 안드로진(중성, 양성적), 바이젠더(남성과 여성이 둘 다 있는), 트라이젠더(남성, 여성, 제3의 성을 가진), 에이젠더(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는), 젠더플루이드(다양한 젠더를 오가는) 등이 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말하는 B씨에게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는 남성이나 여성이냐?”고 묻자 “자신의 정체성과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별개”라며 대답을 거부했다.

이날 퀴어축제에서 에이즈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C씨에게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을 우려했더니 “남성 간 성교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며 “에이즈

는 동성애가 아니라 에이즈 감염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걸리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항문성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성 간 성교도 성기에 손상을 준다”며 “안전하게 항문성교를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 근거 없는 당당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퀴어축제에 참가한 일반 참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자녀들과 함께 왔다는 이창원 씨(43세)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다”면서 “동성애자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에서 온 유학생 D씨는 “모든 사람은 각자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지지했다. 또한 D씨는 “콘돔을 사용하는 항문성교는 정상적인 성관계이다”라며 “스스로 관리만 잘하면 크게 문제 될 것 없다”고 기자를 기합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 밖에도 퀴어축제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동성애와 퀴어축제를 있는 그대로 즐기고 있었다. “사랑은 사랑일 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길 바란다”, “자신의 성적 취향을 표현하는 게 왜 문제가 되지?”, “퀴어축제는 우리가 올 수 있는 곳에서 최고의 장소”,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사랑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성애와 퀴어축제에 대한 옹호와 수용적인 가치관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대책이 시급하다.

퀴어축제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퀴어축제에 한 번만 와보면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트랜스젠더 B씨는 “퀴어축제에 놀러 오라. 같이 놀고 즐기다 보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했고, 이창원 씨는 “내 아이들이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들과 함께 퀴어축제에 왔다”고 말했다. 외국인 참가자들의 의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퀴어축제는 매우 의미 있는 축제”라며 “퀴어축제를 통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反)동성애 진영에서는 퀴어축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었다. 이요나 목사(탈동성애 목사)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며 “동성애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동성애자들의 용어 바로알기

동성애자들이 쓰는 용어를 알면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적나라한 실상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쓰는 용어를 한번 알아보자. 동성애와 관련된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

식성: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혹은 원하는 상대에 대한 체형을 말한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에 따라 상대방을 구한다. 뚱뚱한 체형, 평범한 체형, 근육질 체형, 뚱뚱하지만 근육질의 얼굴과 몸에 털이 많은 베어스타일, 중년남성 등 각자의 고정적인 식성에 따라 교제 상대를 찾는다. 이성애자들도 스타일을 말하긴 하지만 절대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반해 동성애자들의 식성은 절대적이다.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뚱뚱한 사람들만 출입하는 게이바에 가고, 중년의 아저씨를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궂대바(중년 동성애자들이 가는 게이바)를 주로 찾는다. 식성이 맞아야 사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의 식성을 생각하고, 찾아다닌다. 군대, 사우나, 길을 지나가다 혹은 직장에서 식성을 찾고 성욕을 느낀다.

때짜와 마짜: ‘때짜’는 성관계할 때 남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를 말하고, ‘마짜’는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를 말한다. ‘올(애)’은 때짜와 마짜 둘 다 가능한 동성애자이다. 동성애자들은 종종 번개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식성과 성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이유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서로 식성이 맞고 성역할도 맞아야 성관계를 나누고 애정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퀴어축제 현장을 다녀온 솔직한 감정은 ‘퀴어축제는 호기심이라도 가볼 곳이 못 된다’였다. 그곳에서는 선정적인 옷차림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야한 춤사위, 게이바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화장의 드랙퀸(옷차림, 행동 등을 통해 과장된 여성성을 연기하는 사람),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도구와 음란물 등을 버젓이 전시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사랑을 왜 막냐고, 자유와 인권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들 속에 있다 보면 순식간에 동화되기 십상이다. 이와 같은 우렁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은 퀴어축제 참가자 대다수가 10~30대 젊은이들이라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성애자들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올바른 성정체성과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곳에 가게 하면 안 된다. 부화뇌동(附和雷同)하기 심상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나라 동성애 문제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 4:23, 27).

점방: 동성애자들이 만나 성관계를 맺는 업소. 상가 지하나 외진 곳에 간판도 없이 주로 새벽에 영업하기 때문에 근처 상인들도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한다. 상대 얼굴을 보고 식성에 맞으면 큰 방에서 남이 보거나 말거나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기도 한다. 집단성관계도 평범한 일이라 하루 밤에도 수차례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점방은 항문성교를 하고 나온 정액, 대변, 피, 림프액 등이 묻은 수건과 이불, 피와 대변이 묻은 콘돔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위생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점방에서 무작위로 퍼지는 성병이다. 곤지름(항문사마귀)은 동성애자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병인데, 항문성교를 하는 동성애자들은 곤지름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질, 매독과 같은 성병뿐만 아니라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도 높다. 에이즈 제조공장이 따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점방 인근 주민들은 잘 모른다.

항문성교와 변실금: 일반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극소수의 동성애자들만 항문성교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동성애 세계에서 항문성교를 하지 않는 동성애자는 없다. 항문성교는 항문 안에 있는 전립선을 자극하는 행위로 아픔과 함께 지극한 쾌락을 느끼게 된다. 몇 번 하다보면 중독이 돼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항문성교를 하면 성병 감염은 물론이고, 항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질환이 일명 ‘변실금’인데, 항문 괄약근이 늘어나 제때 조여주지 못하므로 평소에도 대변이 흘러내리게 된다. 늘어난 괄약근은 줄어들지 않으며 평생 치료도 안 된다.

전문가 기고

퀴어축제는 A형 간염 전파의 온상이다!

세계 보건당국들의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돼



김지연 약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구와 서울의 퀴어축제를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서명한 국민이 22만 명에 이를 정도로 퀴어축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수

도 서울의 심장이라 불리는 서울광장 한복판에서는 올 여름에도 퀴어축제가 열리고야 말았다. 서울에서만 19번째 행사이다. 그 행사의 음란성과 불법적인 요소가 언론에 자주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고, 소위 ‘퀴어축제 반대 집회’도 같은 시간 맞은편 대안문 광장에서 함께 열리는 진풍경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상의 댓글을 보면 퀴어축제의 음란성 등에 대해 이제 국민들도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퀴어축제가 A형 간염과 같은 특정 감염성 질환이 많이 매개되는 행사여서 세계 보건당국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은 적은 듯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국과 유럽에서 매해 열리는 ‘동성애자 축제’가 A형 간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WHO는 “간염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증상은 몇 달이고 지속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A형 간염 백신이 부족한 지금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A형 간염 확산의 주된 원인은 동성애자 간의 성적 접촉”이라고도 발표했다. WHO의 이 경고를 우리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2030 남성들의 A형 간염 증가 이유

A형 간염은 주로 대변에서 입으로 감염되는 질환(대변-구강 전염, fecal-oral transmission)이다. 이질, 장티푸스 등과 마찬가지로 대변에서 시작해 입으로 들어가게 된 미생물이 일으키는 감염이다. 세균 전파 경로가 대변에서 출발해서 중간 매개체(손, 물, 음식 등)를 통해 결국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기관으로 세균이 이동하는 감염이기에 대변-구강 전염이라고 부른다. 대변-구강 전염 경로 중 흔한 것이 분변에 오염된 물을 살균 없이 마신 경우이므로 ‘수인성 오염’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지



세계적인 게이축제인 스페인 ‘마드리드 오르구요’ 퍼레이드(좌), 남성 동성애자들이 A형 간염에 많이 감염됨을 경고하는 미국 질병예방센터(우).

만, 어디까지나 대변-구강 전염의 하위 개념이다.

정화조가 없어 대변 처리가 비위생적이고 불완전하던 시절에는 A형 간염이 쉽게 전파됐다. 불결한 환경 속에서 대변에 노출된 식수를 마시거나, 분노와 대변을 거름으로 사용한 밭에서 자란 채소를 제대로 씻지 않고 먹은 경우, 대변 유래 세균이 묻은 문고리를 만지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는 행위 등으로도 A형 간염이 전파됐다. 물론 주사 바늘이나 임신 등 직접적인 체액의 전파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예방법은 손과 입을 대변과 멀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A형 간염은 대변 처리를 위한 정화조, 온전한 세척을 위한 상수도 시설, 비누와 같은 세정용품 등 기본적인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에서 주로 발병하던 질병이었다. 상수도가 생기고, 비누의 상용화와 정화조의 도입으로 A형 간염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의외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위생 환경이 좋은 지역의 20~30대 남성들에게 A형 간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 A형 간염환자의 항문에 닿은 손가락, 도구들 때문에 대변이 입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조심하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미량이라 할지라도 대변 유래 물질은 A형 간염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 A형 간염이 발생하는 이유로 남성 간 성관계 시 항문-구강의 직접 경로를 통한 오염, 성 행위 시 오염된 손가락, (성)도구 등을 통한 간접적 오염 등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미국 보건복지부 로널드 장관은 미연방정부의 에이즈에 관한 정보 공개 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이러한 자료들을 인용해 “A형 간염 신규 감염자의 10%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밝혔다. 2014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발표한 건강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18세 이상 남성은 1.6%이고 양성애자는 0.7%로 총 2.3%였다. 이들 중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이 2% 미만으로 추정 가능하다. 2% 미만의 사람들이 전체 A형 간염의 10%나 차지한다는 것은 일반인에 비해 이들 동성애자들이 A형 간염에 훨씬 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역항동연합(IAC, 감염예방의학 활동을 해온 우수한 비영리 의료단체)은 ‘A형 간염과 B형 간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를 위한 가이드’라는 팸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이 팸플릿에는 2010년에 1만7천명이 A형 간염에 전염되었는데 항문 성행위가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7년 스페인에서 보고된 A형 간염은 지난 5년 평균 발생률보다 8배나 증가했다. 대부분 15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발생했다. 2016년 전 세계적으로 A형 간염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칠레 등지에서 동성애 남성에게 의한 확산이 눈에 띈다.

퀴어축제는 간염이 퍼져나가는 축제

영국 보건당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적인 게이축제 중 하나인 ‘마드리드

VIRAL HEPATITIS

Information for Gay and Bisexual Men



What is viral hepatitis?

Viral hepatitis is an infection of the liver caused by one of several viruses. In the United States, the most common types of viral hepatitis are Hepatitis A, Hepatitis B, and Hepatitis C. While all three types of hepatitis can cause similar symptoms, each virus is spread in different ways.

Are gay and bisexual men at risk for viral hepatitis?

Yes. Among adults, an estimated 10% of new Hepatitis A cases and 20% of new Hepatitis B cases occur in gay or bisexual men. Gay and bisexual men are at increased risk for Hepatitis C if they are involved in high-risk behaviors.

Sharing needles or other equipment used to inject drugs puts a person at risk for Hepatitis B, Hepatitis C, and HIV. Of people with HIV infection, 10% also have Hepatitis B and 20% also have Hepatitis C. Some research shows that gay

How is viral hepatitis spread?

• Hepatitis A is usually spread when a person ingests fecal matter—even in microscopic amounts—from an infected person. Anyone who has close contact with another person, anyone who has sexual contact with another person, or anyone who has contact with objects that have been in or near the anus of an infected person, Hepatitis A can also be spread through contaminated food or water, which is most often found in countries where Hepatitis A is common.

• Hepatitis B is spread when body fluids—such as semen or blood—from a person infected with the Hepatitis B virus enter the body of someone who is not infected. The Hepatitis B virus is 50–100 times more infectious than HIV and is easily transmitted during sexual activity. Hepatitis B also can be spread through sharing needles, syringes, or other equipment used to inject drugs.

• Hepatitis C is spread through contact with the blood of an infected person, primarily through sharing needles, syringes, or other injection drug equipment. Hepatitis C can also be spread when getting tattoos and body piercings in unlicensed settings or with non-sterile instruments. Although uncommon, Hepatitis C can also be spread through sexual contact. Having a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 or HIV sex with multiple partners, or rough sex appears to increase a person's risk for Hepatitis C.

The best way to protect yourself from Hepatitis A and B is to get vaccinated.

게이 퍼레이드’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A형 간염 백신을 맞고 참여하라고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현지(마드리드)에 백신이 부족하니 떠나기 전에 자국 내 클리닉에서 예방백신을 맞고 가라고 꼼꼼히 알려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질 때는 고무장갑과 입을 보호하는 도구를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국 보건당국은 “대변으로 오염된 음식물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지만 최근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의 경우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통해 퍼지고 있다”며 A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으로 MSM(남성 동성애자)을 꼽았고, 이런 우려는 런던에서 현실화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남성 동성애자 등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영국 보건당국이 인지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알린 사례이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 2일까지 영국에서 발병된 A형 간염 환자의 74%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A형 간염과 B형 간염 백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다. 그러나 간염이 퍼져나가는 축제이니 예방 주사 맞고 가라는 경고를 하는 축제가 어디에 있는가? 오직 단 하나 퀴어축제뿐이다.

이단 단체의 행사든 변태적인 노출 행사이든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허점을 보이고 있는 현행 서울시광장조례를 하루속히 고쳐야 한다. 보건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동성애 퀴어축제가 서울광장에서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다락방 1사역’ 현황과 과제

높아지는 만족도, 낮아지는 지속성과 참여율
의사소통 개선하고, 참여 독려 및 의견수렴 해야

사회선교본부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다락방장 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다락방 1사역’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18년 1다락방 1사역 현황, 어려운 점, 계획 및 건의사항 등을 물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설문조사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다락방 1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과 사역대상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반면 지속성과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다락방 1사역의 지속성과 참여율이 낮아지는 요인은 사회선교본부와 다락방 간의 소통 부재, 1다락방 1사역에 대한 이해부족, 사역을 위한 재정후원 부족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유익과 만족도, 사역대상, 사역내용, 사역 주기에서 변화가 감지됐다.

1다락방 1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1다락방 1사역의 유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꼽은 응답자가 지난해 5팀에서 22팀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1다락방 1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1다락방 1사역이 주는 유익은 섬김의 은혜와 감사(112팀), 이웃의 어려운 실상에 대한 관심 증대(76팀),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전달(74팀) 등이라고 응답했다. 어려운 이웃들의 실상에 대한 관심 증대는 지난해 30팀에서 76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다락방 1사역 대상은 이주근로자(28팀), 탈북민(24팀), 아동(20팀), 청소년(18팀), 안산M센터(17팀)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가장 많은 사역 대상으로 선택했던 미자립교회는 44팀에서 올해 11개로 확 줄었다. 세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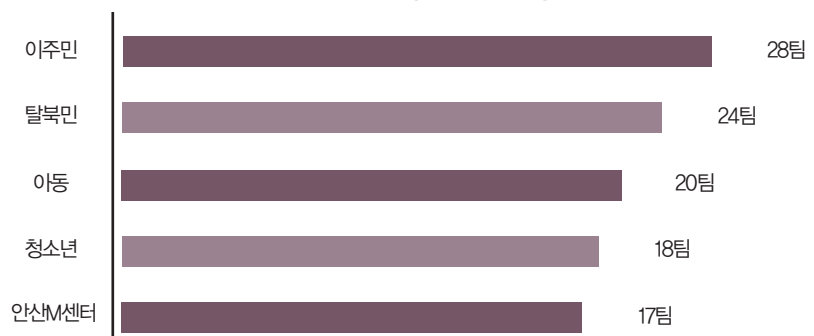
인 난민사태 발생과 남북관계에서 불고 있는 훈풍 등이 이주근로자 및 탈북민을 섬기는 사역 증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고, 미자립교회 섬김사역이 확산하게 준 것은 1다락방 1사역의 지속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다락방 1사역의 주요사역은 식사 및 간식 지원(92팀), 예배지원(55팀), 돌봄사역(41팀) 순이었다. 사역대상자들과 함께 준비해 간 간식이나 식사를 나누고 예배드리는 것이 1다락방 1사역의 주된 방식이었다. 이외에도 재정지원(39팀), 물품지원(28팀)도 주요 사역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도(15팀), 일대일 제자양육(2팀) 등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그 빈도가 적어 다소 아쉽다.

1다락방 1사역 주기는 월 1회(64팀), 연 2회(21팀), 분기 1회(16팀), 월 2회와 주 1회(12팀) 순이었다. 사회선교본부에서는 사역대상자들과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서 적어도 월 1회씩 방문을 권하고 있는데 연 2회나 분기 1회씩 1다락방 1사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다락방 1사역이 일회성(이벤트)사역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1다락방 1사역을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향후 과제도 내놓았다. 1다락방 1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다락방 식구들의

1다락방 1사역 대상



1다락방 1사역의 어려운 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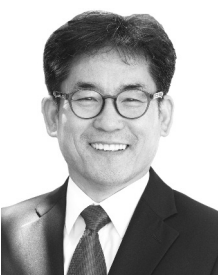


적극적인 참여 미흡(81명), 시간 조율 어려움(65명), 사역대상자들을 자주 방문하지 못함(61명), 재정적 어려움(35명), 사역의 이해 부족(17명) 등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락방장들은 사회선교본부에 ‘성도들의 1다락방 1사역 참여 동기 강화 및 사역조정’, ‘공동체의 관심과 격려’, ‘목회자 및 장로 등 리더의 적극적 참여’, ‘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사회선교본부와 다락방장들이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점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올해

초 사회선교본부에 배포한 1다락방 1사역 매뉴얼을 다락방장 24%가 수령하지 못했고, 매뉴얼을 받은 다락방 구성원 35%가 읽지 않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소통 창구가 되어줘야 하는 각 공동체 1다락방 1사역 담당자가 누구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선교본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락방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 혹은 창구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다락방장과 사역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목회칼럼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

사회를 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1다락방 1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에 동참해서 수고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1다락방 1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믿는다.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성육신적인 교회, 사회참여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1다락방 1사역은 교회의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사역이다. 성육신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도움이 필요하면 교회로 오라고 했지만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교회가 찾아가야 한다. 그렇게 교회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웃들이 있는 곳이 교회로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힘쓸 때 교회는 사회참여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민주화가 된 이후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탈북자, 다문화가정, 청소년, 입양 등 크고 작은 사회 문제가 많다. 과거에는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관계 맺고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회의 다양한 소외문제, 문화적 차이, 환경문제, 교육 등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적

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하는 전도를 선교라고 생각했다. 선교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1다락방 1사역은 사역대상자를 믿는 사람들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역대상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다. 나눔과 선교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1다락방 1사역 대상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 한다. 그런데 1다락방 1사역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한다. 관계를 맺은 다음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순서이다.

탈북자가 3만 명인데 한국에 잘 적응하는 사

람이 10%에 불과하다. 한 다락방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 가정과 꾸준히 교제하면 그 가정은 누구보다 잘 적응할 것이다. 이것이 1다락방 1사역이다. 1다락방 1사역은 그저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서 1다락방 1사역이 줄었다. 사역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사역대상자를 찾는 어려움 때문이다. 1다락방 1사역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선교본부는 내년부터 사역지를 선정해서 연결해주고,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할 것이다. 1다락방 1사역의 의미와 역할,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홍보하고 교육할 것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열고, 전담사역팀 활동도 왕성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웃음과 인사가 관심과 사랑으로!

남양주 온누리교회 ‘스마일 캠페인’ 실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스마일 캠페인을 시작하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7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스마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냥 인사 한번 했을 뿐인데, 미소 한번 지었을 뿐인데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행복이 샘솟고 있다. 스마일 캠페인의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 북한민(北鄉民), 다문화가정 등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고 싶은 이웃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몰라보게 줄어들었다. 웃음과 인사가 관심과 사랑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열매 맺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스마일 캠페인이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석재연 집사가 활짝 웃고 있다.

지난 8일 남양주 온누리교회 예배당 앞. 한 미소를 뽐내고 있는 노란색 스마일 풍선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옆에는 안내팀이 노란색 스마일 배지를 달고 밝게 웃으면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교회를 찾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는 웃음, 기쁨, 미소, 관심, 사랑이 가득했다. 스마일 캠페인 현장은 기쁨과 행복 그 자체였다.

스마일 캠페인은 식당, 화장실, 복도와 계단 등에서 더욱 밝게 빛나고 있다. 교회 곳곳을 오가는 성도들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꽃도 피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는 표현을 이때 쓰는구나 싶었다.

스마일 캠페인에 동참하는 방법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7월 한 달 동안 실시하는 스마일 캠페인은 글자 그대로 ‘웃으면서 인사하는 운동’이다. 석 달 전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실시한 ‘명찰 달기’ 캠페인을 표방해서 시작했다. 양지 온누리교회가 실시한 명찰 달기 캠페인은 매주 주일 명찰을 달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 주면서 인사하는 운동이다. 양지 온누리교회에 새가족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

니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실시한 캠페인이었다.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명찰 달기 캠페인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고 캠퍼스 협력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공유했다. 캠퍼스 협력위원회에서 이 소식을 들은 임현태 장로(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무릎을 쳤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도 꼭 필요한 캠페인이었기 때문이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공동체나 사역팀이 아니면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벽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인사라고 생각했어요.”

남양주 온누리교회 담당 안광국 목사도 임장로의 제안에 동의했다. 최근 새가족팀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온 지 10년 만에 등록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10년 동안이나 예배만 드리고 가셨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5월부터 스마일 캠페인을 준비했고 남양주 차세대가 시범을 보였다. 6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차세대들이 어른들을 찾아가 인사하는 캠페인을 했다. 인사하는 차세대는 어른들에게 칭찬을 듬뿍 들어서 좋고, 인사받는 어른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다. 성

도들의 호응에 힘입어 스마일 캠페인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스마일 캠페인은 대상이 차세대에서 성인까지 확대되었다. 스마일 캠페인의 가장 큰 목표는 그동안 잘 몰랐던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다.

스마일 캠페인에 동참하는 방법은 이렇다. 하나, 그동안 잘 몰랐던 성도들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 웃으며 인사한다. 둘, 7월 첫째 주에 주보와 함께 받은 스마일 스티커를 서로의 스마일 스티커 판에 붙여준다. 명함 크기의 스마일 스티커 판은 양면으로 되어 있다. 한쪽 면에는 스마일 표정이 그려진 노란색 스티커 8개가 붙여져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빈공간이어서 스티커를 공유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셋, 스티커를 모두 공유한 스마일 스티커 판을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동그란 스마일 부채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스마일 부채는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도 있고, 전도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스마일 부채 한면에는 스마일 표정이, 다른 한쪽 면에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소개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철 만지 않는 이 웃과 이주민들을 전도하면서 나눠주는 선물로 부채보다 좋은 게 없다.

스마일 캠페인은 행복 바이러스

스마일 캠페인에 동참하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놀랍다. 화장실을 오갈 때도, 계단 오르내릴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식사할 때도 인사를 주고받는다.

석재연 집사는 2부 예배(11시 30분)를 드리고 식당으로 가면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 상대방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냥 웃으면서 인사한 것뿐인데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아이들을 만나면 축복의 인사를, 어른들을 만나면 안부 인사를 건네니깐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스마일 캠페인의 유익이 또 있다. 성도들이 웃으면서 인사할수록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어색한 관계의 벽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

족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요.”

박숙 집사는 스마일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박 집사는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를 했다.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인사하기가 조금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가 예배 반주를 섬기고 있어서 바쁘기도 하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인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스마일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모르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밝게 인사를 했더니 더 많이 웃게 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박숙 집사는 스마일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

“밝게 웃으면서 나누는 인사 한마디가 새가족들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인사를 할 거예요.”

스마일 캠페인은 어른들과 차세대들 사이에 쌓여 있던 세대 간 장벽도 허물어졌다. 박숙 집사의 딸 양하연 어린이(11세)는 요즘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고백했다.

“평소에는 어른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는데 막상 인사를 드리니깐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유찬영 학생(19세)은 스마일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한번 용기내서 인사했더니 친구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밝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행복한 하나예배공동체’는 스마일 캠페인을 누구보다 반기고 있다. 행복한 하나예배공동체는 북한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그들에게 스마일 캠페인은 격려이자 기쁨이다. 북한민 김예유 성도는 “서로 웃으면서 인사할 때 사랑으로 안아주는 느낌이 든다”면서 “일터에서도 밝게 인사하기를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현정 집사(행복한 하나예배 팀장)는 “스마일 캠페인은 행복 바이러스”라며 “각자의 삶 속에서 스마일 캠페인을 실천하면 우리 사회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_일본



전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OMMC)은 6월 1일부터 3일까지 러브소나타 삿포로 후속 프로그램으로 일본 현지교회를 방문했다. 삿포로에 있는 ‘그리스 커뮤니티 교회’와 ‘삿포로신교회’가 바로 그

곳이다. 두 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했다.

올해 3월부터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모든 단원들이 일본 교회를 위한 찬양사역을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다. 출발하기 한 달 전부터는 중보기도팀을 구성해서 “성령 충만한 일본사역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이 있었다. 모든 찬양을 일본어로 불러야 했다. 이미 알고 있는 찬양이 있지만 일본어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또한 모든 비용을 자비량으로 준비하다보니 재정이 걱정되었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하나님께서 부족한 선교비용을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아웃리치에서는 온누리남성합창단과 일본 현지교회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다. 온누리남성합창단 단원 31명이 찬양을 선보였고, 그리스 커뮤니티 교회와 삿포로 신교회에서는 일본인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홍보 팸플릿을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무려 1개월 전부터 홍보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일



일본에서 찬양사역으로 복음을 전한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본 성도들과 초대된 일본인들의 표정에서 우리의 찬양을 기대하는 마음이 엿보였다.

일본 현지교회에서의 음악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음악회에서 우리가 일본인이 작곡한 ‘God bless you’를 찬양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모든 일본인 교인들이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며 눈시울을 붉혔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 왔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노래 ‘후루사토’를 부를 때에는 모두 눈을 감고 함께 고향을 그리워했다.

이민목 목사님의 말씀도 마음에 깊이 남았다. 목사님은 실제 사례를 들어 복음을 전하셨다. 그 내용은 이렇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100세 생일을 맞이한 마스모토 선생님이 제자들

‘風(풍), 道(도), 祈(기)’



과 생일 축하 파티를 했다. 그 파티를 취재하러 온 영국 BBC 기자가 마스모토 선생님께 “선생님은 이 바람 부는 홋카이도에서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때 마스모토 선생님은 붓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風, 道, 祈’라는 세 글자를 쓰시고 이렇게 답했다.

“이 세 글자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홋카이도에서 기도하며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민목 목사님은 “우리들의 인생길도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신다”며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일본인들을 축복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나이가 지긋한 일본인 성도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성도는 마치 자신의 인생의 남은 날을 생각하는 것 같

았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는다.

어느덧 음악회를 마치고 헤어질 때가 되었다. 모두 나오셔서 손을 흔들며 아쉬워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임을 느낄 수 있었다. 성가사님을 비롯한 모든 단원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일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일본을 향한 찬양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이었다. 내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단원 모집 _ 문의: 010-7222-4071

서빙고 누리사랑부 수련회



박명주 성도
(성동광진공동체)

누리사랑부(성인 장애인)를 위한 예배공동체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원도 속초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다. 올해 수련회는 유독 참여율이 낮았다. 장애인 지체들의 잦은 수술과 치료, 재활 때문이었다. 더 많은 장애인 지체들과 함께 하지 못해 마음이 많이 아팠다.

나는 “주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주세요”라며 울며 기도했다. 장애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찌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주님 제발 누리사랑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어떻게 하면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을지 기도하며 준비했다.

수련회 첫날부터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둘째 날은 DMZ를 방문해서 북한을 위해 기도를 했다. 바닷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멋진 사진도 찍으니까 너무 행복했다. 찬양대회도 열었다. 제비뽑기로 찬송가 악보 5장씩 묶음을 뽑아서 제

능과 능력에 맞게 발표했다. 박철웅 목사님은 찬송가를 랩으로 부르셨다. 다른 조는 악기, 율동, 목소리로 간증하며 찬양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지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찬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말이다.

13년 넘게 누리사랑부를 섬겼지만 늘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원하셨는데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고 함께 있어주지만 했다.

과거 공동체 목사님이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다며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다. 그 목사님의 소개로 누리사랑부를 알게 되었다. 장애인들을 곁에서 보지 못한 나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다. 처음에는 꾸준히 누리사랑부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다. 내가 누리사랑부 예배에 가지 못하는 날이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누리사랑부 지체들 모두가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누리사랑부는 대신 아파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며, 날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는 부서다. 혼자 교회를 다니는 나로서는 그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누리사랑부에는 찬양할 때 큰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는 형제, 나오지 않는 목사

그저 함께 있어주면...



누리사랑부 수련회에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

리로 대표기도를 하는 집사님, 투석으로 힘들지만 열심히 참석하는 형제, 흥천에서 매주 주보를 만드는 자매 등 귀한 지체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나오기 힘든 상태가 되는 장애인들과 집사님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누리사랑부는 한 가족처럼 무엇이든 나누어 먹는 공동체다. 이곳에 오면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저 함께 있어주면 된다.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하다보면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수련회도 섬기는 분들이 부족했지만 부족한대로 서로 손잡아 주고 힘이 되어주며 함께했다. 태풍 속에서도 좋은 날씨, 원활한 교통, 안전까지 지켜주시는 기적도 체험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누리사랑부 수련회를 위해 중보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장애인들을 향한 예비 장애인들(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꼭 필요하다. 누리사랑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한강공동체 인도네시아 메단



배준학 집사
(한강공동체)

한강공동체와 서빙고 온누리교회 B 밴드로 구성된 지체 20명이 2018년 7월 4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지난 3년 동안 한강공동체는 2016 자카르타, 2017 말라, 2018 메단에서 선교사 섬김, 빈민가 식사봉사, 고아원, 신학교, CGNTV 안테나 설치, 찬양집회 등의 다양한 사역을 했다.

올해 아웃리치는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갔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도시인구의 30~40%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메단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웃리치의 첫 발을 내디뎠다.

매일 낮 시간에는 고아원을 방문해서 공동체에서 준비해 온 선물과 현금을 전달했다. 분과 활동에서는 제기차기, 종이접기,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풍선불기, 비눗방울 놀이 등을 했다. 아이들에게 예쁜 태극기 손수건을 돌려주고 전도 팔찌도 매웠다.

우리가 섬긴 고아원들은 지역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다. 이 고아원들은 무슬림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으며, 지역 기독교인들의 기부로 어렵게 연명되고 있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물품과 선물을 준비했다. 산더미처럼 많은 선물을

준비했지만 가장 환영받은 것은 샌드와 운동화였다. 수량이 한정되어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다. 아이들의 예쁜 맨발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리며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고아원 봉사를 마친 뒤 현지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메단에 있는 모든 한인 선교사 가정을 식당으로 초청해 연보와 노트북, 화장품, 상비약을 전달했다. 다행히 준비해온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

“화장품 다 떨어진 줄 어떻게 아셨어요?”

“노트북 달라고 그동안 기도했었는데.”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

2회에 걸쳐 지역교회에서 찬양집회도 진행했다. 문영재 목사님과 아웃리치 팀원들은 지난 두 달 동안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찬양 5곡과 썸 3곡 등 모두 8곡을 연습했다. ‘과연 우리가 인도네시아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집회를 시작했다. 현지 찬양곡 ‘떨뽀질라 나마루’를 연주할 때 많은 현지 성도들이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다. ‘좋은 하나님’을 연주할 때에는 연로하신 지역 목사님들이 일어나 어깨를 들쩍이며 울동을 따라 하셨다. 그 모습이 마치 다윗이 오벧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들어오며 춤을 추는 모습 같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이번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는 다양한 배경을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 고아원에서 네일아트 봉사를 한 한강공동체 성도들.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다. 은혼식 기념으로 유럽여행을 가려다 아웃리치에 합류한 부부, 교회등록을 하자마자 아웃리치를 결심한 자매, 믿지 않는 외국인 남편과 함께 참여한 자매 등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웃리치에 참가한 팀원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여하셨다. 특히 외국인 남편과 함께 참여한 자매가 큰 은혜를 받았다. 외국인 남편이 집회 내내 팀원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 마지막 날 메단 한인 교회에서 외국인 남편이 세례를 받았다. 아내는 30년 결혼생활 중에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눈물 흘렸다.

아웃리치 팀원들은 그 부부를 꼭 안아주며 함께 기뻐했다.

2018년 한강공동체 아웃리치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다. 찬양, 물품 전달 등 모든 준비의 주축이 되어준 새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물품과 현금으로 풍성히 섬겨주신 한강공동체 모든 식구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늘 느끼지만 해외 아웃리치는 작은 준비로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 같다. 다음 아웃리치에도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해 본다.

양재 2000선교 국내 선교역사 여행



김종호 장로
(양재 2000선교 임원)

양재 온누리교회 2000선교사역팀(담당: 김도균 목사)이 지난 7월 7일(토)부터 8일(주일)까지 부산, 경남지역으로 선교역사 여행을 다녀왔다. 2015년 광주, 순천, 여수를 시작으로 2016년 전주, 김제, 군산, 2017년 강화도에 이어 이번이 제4차 선교역사 여행이었다.

한강 이남의 최초 교회 중 하나라고 알려진 초량교회와 부산진교회, 일신여학교-왕길지 기념관, 의료계의 CGNTV 같은 일신기독병원, 수영로교회 엘리브선교센터, 동래중앙교회의 한국기독교 선교박물관, 창원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 호주 선교사 묘역을 돌아보는 뽀뽀한 일정이었다.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가족이 있다. ‘한국 나환자의 친구’라고 불리는 맥켄지 목사(James Noble Mackenzie, 한국명 매견시)님의 가문이다. 조선에 오셔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도 많고, 유진벨 가문처럼 대를 이어서 조선을 위해서 선교하신 가문이 여럿 있는데 맥켄지 목사님의 가문도 그렇다.

맥켄지 목사님은 1910년부터 1938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추방 될 때까지 조선의 나환자 치

료와 갱신에 헌신했다. 처음에는 나환자 40명을 돌봤는데 1938년에는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1930년 전국 나환자가 2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 1/3정도인 6~7천 명이 경남에 거주했다고 한다. 맥켄지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맥켄지 목사님은 영남지역 순회 전도와 조선 예수교장로회 경상노회를 창립했고, 1939년 일제의 추방령에 의해 호주에서 별세했다. 맥켄지 목사님의 부인 매리 맥켄지(Mary Jane Kelly)는 ‘미감아의 집’을 설립해서 한센병 환자들이 버린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한다. 1952년 맥켄지 목사님의 두 딸(매혜란, 매혜영)이 간호사가 되어 그들이 태어난 부산으로 다시 왔다. 일신 부인병원을 설립할 때 이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병원은 무료진료가 60%였으며 현재도 소외된 자들을 위해 50% 이상을 무료로 진료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약 30만 명의 아기를 받아 단일 병원으로는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로 성장했다고 한다. 호주로 귀국한 이후에도 전국을 돌며 약 100억이 넘는 기부금을 마련해서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결국 오늘을 보는 통찰력을 갖는 것이고, 역사를 모르거나 역사

끝나지 않는 소풍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돌아본 양재 2000선교팀.

를 배우지 못하는 집단이나 교회, 나라는 결코 새롭게 되거나 발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왜 구한말 쇠잔해가고 열강의 탐바구니에서 민생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암울하던 그 시대에 이 땅을 찾아와서 흠으로라도 이 땅에 남으려고 했던가? 다시 되돌아 봐야 할 것 같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다”고 한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

다. 한국 교회도 역사를 소홀히 하고 소중히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역사적인 현장들을 발굴하고 확대 재생산해서 관광자원으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육신적으로 선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선교하셨는지를 묵도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다. 기적 같은 선교 역사를 많이 배웠다.

전문가 기고

나 너 그리고 우리

‘나의 기질’, ‘너의 성격’ 넘어 ‘Jesus Type’ 으로!



하혜숙 성도
(강동 온누리교회,
방통대 청소년교육
과 교수)

우리의 성격에는 타고난 ‘심리적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다. 타고나는 심리적 기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속도가 빠르면서 일 중심인 유형을 ‘주도형 또는 D(Dominance)형’, 속도가 빠르면

서 관계 중심인 유형을 ‘사교형 또는 I(Influencing)형’, 속도가 느리고 관계 중심인 유형을 ‘우호형 또는 S(Steadiness)형’, 속도가 느리고 일 중심인 유형을 ‘분석형 또는 C(Compliance)형’이라고 한다.

타고난 네 가지 심리적 기질

주도형은 한마디로 ‘주도적 지시자’이다. 주도형을 대표하는 심리적 특성은 도전성인데, 이것은 목표에 대한 집착과 목표를 달성할 때 환경을 이겨내는 힘이다. 빠르고 강한 속성이다. 전투태세가 되면 숨겨져 있던 발톱이 나오고 갑옷이 장착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말귀 못 알아듣는 인간이 제일 싫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상황이 되면 판단이 신속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따라와 주지 못하면 신경질이 나고 ‘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독단적이고 성급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주도형의 좌우명은 “고난이여 오라 내 가슴은 뚫다, 불가능이란 없다, 내가 가면 길이 된다, 뽀세게 살자” 등이다. 주도형에게 있어 꿈의 직업은 대통령이 나 감독, 지휘자 등 무언가를 통솔하고 지도하는 영역이며, 이들이 싫어하는 유형의 성격은 우유부단하고 느리고 변명하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주도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을 꼽는다면 바울이다.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니라”(행 9:22).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특성도 보인다.

“게바(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갈 2:11).

사교형은 ‘영향을 주는 관계 형성자’이다. 주로 외향적이고 감정표현이 풍부하다. 사교형은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얼굴에서 웃음기가 보이고,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고 대화를 잘 이어나간다. 물론 세일즈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사교성이 생길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학습된 경우에는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그러나 타고난 사교성은 그 자체로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재미를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 대화할 때 특정한 주제가 없는 것을 편안해하고 자유롭다고 느낀다. 주변으로부터 “생각보다 말이 앞선다, 비조직적이고 비현실적이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사교형의 좌우명은 “즐거운 인생, 잘 먹고 잘살자, 현재를 즐겨라” 등이다. 사교형에게 있어 꿈의 직업은 공연 연출가, 연예부 PD, 리조트 운영 등으로 일 자체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다.

성경에서 사교형으로 보이는 인물은 아론과 베드로라고 할 수 있다. 아론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능력으로 모세의 입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출 4:14).

베드로는 말로 설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긍정적 성향을 가지고 주님을 무조건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은 사교형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건제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행 3:12).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마 14:28-29).

우호형은 ‘일관성 있는 지원자’이다. 우호형의 높은 수용성은 타인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잘 타협하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너그럽게 동참하는 것을 기뻐한다. 심리 내적으로 정서가 풍부하고 갈등상황에 놓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많이 살피기도 한다. 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스트

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이다. 주변으로부터 “소심하다, 여리다, 추진력이 없다, 결정이 느리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 유형의 좌우명은 “폐 끼치지 말자, 새옹지마,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등이다. 우호형들은 언뜻 보면 내향적으로 보이지만 안전하고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나눈다. 우호형에게 있어 꿈의 직업은 시인, 생태관광 가이드, 현모양처, 카페주인 등 돈은 좀 못 벌더라도 조용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선호한다.

성경에서 우호형으로 보이는 인물을 예로 들자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고...”(창 12:1-4).

롯과의 관계를 보면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먼저 내어주는 배려의 모습을 보인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9).

또 한편으로 상대방 앞에서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었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창 17: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성격적 기질까지도 헤아리시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세밀하게 터치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분석형은 ‘완벽한 통제자’이다. 분석형을 대표하는 심리적 특성은 신중성인데, 신중성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정서를 잘 누르면서 이성적인 원칙에 따라 그 과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끝까지 마무리해 내는 힘이다. 분석형은 규칙과 원칙에 강하고 논리적이다. 문제해결에 강

한 내향형이다 보니 “사교모임을 싫어하고 자기표현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주변으로부터 듣는다. 분석형의 좌우명은 “한번 한 실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둘다리도 두들겨 보자, 일신 우일신” 등이다. 분석형에게 꿈의 직업은 과학자, 판사, 교수, 과학수사대 등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일들이다.

성경에서 신중형 인물을 예로 들자면 모세라고 할 수 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준수하고 언약, 율법을 정확하게 준행한다.

“모세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출 24:4),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 24:7).

백성들에게도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고 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신 5:1).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자!

우리는 각자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마도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각기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둘째,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으로 빚으신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의 기질, 너의 성격 유형이 아니라 ‘Jesus Type’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면 좋겠다. 그동안 대인관계에서 서로에게 가졌던 노여움과 비방을 버리고 새롭게 행하자. 서로 오래참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피차 용납하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시듯 우리도 그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골 3:1-2).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8-10).

추억도 쌓고, 복음도 전하고!

사회선교부, '2018 행복드림 다문화 가족캠프'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자녀들과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있다.

사회선교본부 다문화팀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018 행복드림 다문화 가족캠프(이하 다문화 캠프)'를 남이섬 베스트캠핑장에서 개최했다. 다문화 가족캠프에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토요다문화교실, 양주진리교회, 포천 평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지에서 온 20가정이 참가했다. 다문화 캠프에서는 물놀이,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보물찾기, 예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송석근 목사(사회선교부 다문화팀)는 "가족중심 활동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는 게 흐뭇했다"고 말했고, 허원희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이번 캠프를 통해 믿지 않는 다문화 가정이 기독교에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채하경 선교사(양주진리교회)는 "가족과 함께 추억도 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씨(양주진리교회)는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추억을 쌓았다"면서 "아이들을 꼭 교회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간 증

좋은 추억과 쉼을 얻다

나는 9년 전 한국에 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다. 문화도 달랐고 대화가 되지 않아서 답답했다. 무엇보다 이웃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그때 내게 위로가 되었던 유일한 곳은 교회였다. 베트남에서 한 번도 교회에 간 적이 없었지만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을 통해 간 교회는 참 따뜻했다. 지금도 사는 것이 빠듯하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가족과 함께 놀러간 적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다. 남편도 매일 일하러 가고, 나도 집에서 다섯 살 된 쌍둥이 아이를 키우면서 부업을 하고 있다. 아이들 돌보라 일하

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교회에서 다문화 캠프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했다. 남편은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나도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 캠프에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서 기뻐다.

캠프에 갈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캠프를 위해 성심성의껏 준비해주신 교회 리더십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려우 자매(남양주 온누리교회)

인천 몽골어예배
봉사자 모집

인천 온누리교회 몽골어예배에서 예배봉사자 및 한국어 강사를 모집하고 있다. 몽골어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 온누리교회 제너렘 7층 믿음홀에서 드린다. 몽골어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2267-9531

두란노바이블칼리지 8월 세미나 개강

두란노바이블칼리지 8월 세미나가 개강한다. 포문은 성경연구학과 일일특강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미나가 연다. 8월 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명확한 믿음, 구원, 삶의 열매에 대한 김세운 교수(폴리신학대학원)의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성도와 목회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3만원이다. 문의: 02-2078-3266

스트레스와 불안에 노출된 현대

인들을 위한 특강이 열린다. '민병배 교수의 일일특강 불안 마주하면 다스릴 수 있다' 세미나가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불안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정서를 다룸으로써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학습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강의이다. 민병배 교수(마음사랑 인지행동치료센터)가 강의한다. 회비 8만원이다.

문의: 02-2078-3263

대학청년부, FA 15기 참가자 모집

8월 3일까지 선착순, 전화나 이메일 신청

대학청년부 단기훈련선교 프로그램 FA(Frontier Agency) 1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등록 세례교인(6개월 이상)으로 35세 이하(84년생)여야 한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8월 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8월 4일에는 FA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FA 선교사로 선발된 대학청년들은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합숙훈련을 받는다. 합숙훈련을 마친

면 9월 21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게 된다.

지금까지 청년 226명이 FA 선교사로 헌신했다.

송지원 자매(허브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된다"면서 FA 14기에 이어 15기에도 참가신청을 했다.

문의: 070-4464-8105, fa@timor.kr

후원: 573-910009-62805

하나은행 (FA간사)

“배려하고, 동참할 수 있어서 즐겁다”

적극적 참여 돋보인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최고기온 33도를 웃도는 지난 주 일(15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왔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택시를 기다리던 배호태 성도(마포공동체)는 "환경을 아끼고,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어서 즐겁게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부 예배가 한창인 오전 10시 무렵에도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장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서빙고 이천만광장에서는 (재)녹색미래와 함께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레기지도 그리기, 알루미늄 캔으로 향초 만들기, 페트병으로 화분 만들기 부스가 운영됐다. 이성준 성도(무공동체)는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환경을 아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온누리교회는 환경, 이웃, 자연을 배려하기 위해 매년 4회씩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이주민공동체 여름사역 한창

해외 아웃리치 5팀, 수련회 13회

온누리교회 이주민공동체 여름사역이 한창이다. 올 여름 이주민공동체는 해외 아웃리치 5팀, 공동체수련회가 줄지어 예정되어 있다. 이주민공동체 해외 아웃리치 포문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몽골 아웃리치팀이 열었다. 내일(23일)은 러시아, 모레(24일)는 캄보디아, 30일에는 베트남으로 아웃리치를 간다. 여름 수련회는 오늘(22일) 미얀마공동체를 시작으로 다음달 25일 베트남공동체 수련회까지 이어진다.

한편 온누리M미션에서는 여름사역에서 활용할 헌물과 봉사자를 모집한다. 문의: 010-2959-0908

간 증

“선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 O국에서 만난 A형제의 이야기입니다. 2001년 한국에서 팔을 다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온누리교회 전도사님이 여러 차례 방문해서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O국으로 돌아온 A형제는 교회를 찾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나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면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 교제하던 대학생 B형제까지 초대해서 셋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B형제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친구 두 명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지금 자하교회 개척멤버가 되었습니다. A형제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교회로 인도해 주신 온누리교회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칼럼

스페이스 바움(도심 속 음악의 숲)



김동언 장로
(강촌공동체)

나이가 들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가문의 신앙이다. 우리 집안은 한국 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유산을 지켜오고 있다. 뿌리 깊은 신앙교육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주님께 받은 축복은 많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어릴 적 교회 지체들과 마을에 무대를 만들고 찬양과 연극을 하며 봉사했던 기억이 났다. 이런 추억들이 내 안에서 되살아나며 문화사역을 마음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대학생 때 교회만 가면 몇 시간이고 찬양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예배 시간에 드러지는 찬양과 특순을 제외하고는 찬양을 듣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온누리교회는 열린예배를 통해 다양한 찬양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좋은 연주자들을 쓰지 못하고 MR(반주)을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수준 높은 연주와 찬양을 LIVE로 듣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다. 세상 음악은 최고의 시설과 기술로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데 찬양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음반조차 제작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꾸며진 무대에서 좋은 찬양을 들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100석 규모로 작지만 모던한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

러진 공간과 음향시설을 갖춘 콘서트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콘서트장의 이름을 ‘스페이스 바움’이라고 지었다.

이 콘서트장은 ‘도심 속 음악의 숲’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스페이스 바움은 성도들이 찬양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움(baum)은 독일어로 ‘나무’를 뜻한다. 아내가 디자인한 스페이스 바움의 로고도 나무 모양으로 되어있다. 로고를 자세히 보면 십자가로 나무줄기를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이스 바움에서는 다양한 공연들이 매주 막 오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 바움을 방문해서 다양한 기독교 공연과 연주를 볼 수 있다. 평일에는 세미나, 강연, 연극, 무용, 북 콘서트 등 인문학 행사를 기획해서 다른 공연장과 차별을 두고 있다. 또 일본인을 위한 ‘브릿지 콘서트’를 기획해 전도의 장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게스트들이 출연한 공연도 만나 볼 수 있다.

지난주에는 ‘노래를 짓다’라는 특별한 공연이 막 올랐었다. 한웅재 목사(CCM 그룹, 꿈이있는자유)가 곡을 만드는 3명의 후배와 함께 2시간 동안 공연했다. 이날 수많은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런 공연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다. 찬양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다. 또 갤러리 전시와 음악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도 구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심을 얻어갈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싶다. 서울에는 공연장이 많다. 하지만 찬양과 예배로 꾸며지는 무대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영적인 심을 얻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앞으로도 스페이스 바움이 주님을 만나고 심을 얻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권사칼럼

순종과 그림



박희숙 권사
(분당B공동체)

나는 40대 초반까지 그림을 그리다 그만뒀다. 그림에 몰입하게 되면 아내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부산에서 결혼하고 죽 살았다. 그러다 1988년에 서

울로 이사를 오면서 자연스럽게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세워가셨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 있었다. 남편 회사도 정리됐고 자녀들도 장성해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노년을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필리핀에 갔다.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계시는 사역자들에게 영적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부흥회도 진행하고 내적치유도 실시했다. 하나님께서는 4년 동안 그 땅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자 양재 온누리교회 권사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잠시 머뭇거렸다. 열심히 섬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누군가를 세울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또 필리핀에서 막 돌아왔을 때 안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권사회장을 맡으라는 것이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재 권사회 회장을 맡았다. 양재 권사회 회장을 맡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속사람을 다루시고 강건케 하셨다. 섬김을 통해서 지쳐있던 나를 회복시켜주셨다.

권사회를 다년 간 섬기고 내려놓게 됐다. 그리고 CGNTV 중보기도 팀장자리를 제안 받았다. 다 늙은 나이에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쉬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회복을 선물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그리고 70살이 되는 해 전시회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림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CGNTV 후원금으로 봉헌하고 싶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경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그림을 그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사람들이 제 그림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작품을 완성했다. 그리고 좋은 갤러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우여곡절 끝에 좋은 갤러리가 선정돼서 내가 그린 그림을 전시할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내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평안을 얻어 갔다. 그때부터 8개 도시를 순회하기 시작했다.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나는 데뷔를 했다. 기적 같은 일을 주님이 하셨다. 가정과 하나님의 일로 30년 동안 그림을 포기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섬전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나는 미대 출신이 아니다. 나이도 많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망막수술을 해서 한쪽 눈은 직선이 곡선으로 보이고 작은 게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신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이 기대된다.

신앙에세이



송석근 목사
(광명공동체)

지난 5월 열린 러브 소나타 샤프로에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참가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나는 이번 러브소나타 샤프로에서 참가자팀 40여명을 인솔했다. 처음 섬기게 된 사역이라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그래도 샤프로로 떠나기 전에 참가자관리팀을 도우면서 사전에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어 호텔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짐을 풀고 휴식을 취했다. 그 다음날 오전부터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오전에 교회세미나를 하는 키보노 오카교회에 가서 안내팀으로 섬겼다. 오후에

는 관광지로 유명한 오타루 지역에 갔다. 샤프로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라 할 만큼 볼거리가 많았다. 저녁에는 가스펠나이트를 참관했다. 가스펠나이트는 일본 출연진들이 준비한 집회이다. 이 집회에서 일본 목사님의 메시지가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통역기를 사용했는데 잘 들리지 않아 전체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은 메인 행사인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렸다.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오실지 기대됐다. 감사하게도 1,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모두 채울 정도로 많은 일본인들이 오셨다. 많은 열매도 있었다. 결신자 41명, 관심자 126명이 나왔다.

이번 러브소나타 샤프로는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러브소나타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의 최북단인 샤프로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본다.

나는 온누리교회가 러브소나타를 11년째 계

속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일본인들의 성향으로는 대규모 집회가 잘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제는 소그룹 중심의 행사로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러브소나타 샤프로를 참가하면서 러브소나타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역사에서 보면 일본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면 반드시 한국을 침략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의 대륙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한국은 임진왜란과 한일병탄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위안부 문제 등으로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기독교를 꽃피우게 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품으라”는 명령인 것이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못 미칠

정도로 선교 불모지다. 그래서 일본 선교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브소나타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마치 니느웨를 선교하라는 요나와 같은 심정이 바로 우리들의 심정일 것이다. 역사적인 상처로 인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본을 향한 러브소나타는 계속 울려 퍼져야 한다.

선교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일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계속 품고 나아가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일본 열도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복음으로 일본을 덮을 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이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본이 복음화 되는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과학학 목사의 말과 말씀



과학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1998년 7월 프랑스 월드컵. 당시 프랑스는 개선문부터 콩코드 광장까지 짝 들어찬 대규모 인파가 뿜어내는 열기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자국에서 치른 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

무리된 데다가 우승까지 거머쥐었으니 온 나라가 그야말로 잔칫집이었다. 그 축제의 해 연말에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훗날 프랑스 축구를 이끌어 갈 ‘음바페(Kylian Mbappe)’다.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제2의 펠레’라는 찬사를 받으며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20년 만에 조국의 품에 우승컵을 안긴 음바페는 프랑스의 차세대 축구 영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월드컵은 끝났지만 입추의 여지가 없는 상젤리제 거리는 아직도 수많은 삼색기와 축하 연막이 가득하다. 프랑스는 이 젊은 영웅에게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수여하고 부와 명예를 안겨줄 것이다.

그런데 올해 열아홉인 이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냉탕과 열탕을 오갔다. 벨기에와의 준결승전에서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축구팬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크로아티아와의 결승전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썬기골로 박수와 칭찬을 보내준 팬들에게 보답했다. 일본 작가 츠지 히토나리의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Between Calm And Passion)>처럼 노련한 냉철함과 젊음의 패기 사이에서 이 어린 선수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레 블루(Les Bleus, 푸른 군단)’의 특징은 이주민 유망



프랑스 대표팀 축구선수 음바페.

주 발굴과 인종 차별이 없는 외인부대라는 사실이다. 인재 육성을 위한 포용 정책과 긴 안목이 프랑스 축구를 뜨거운 열정으로 유지시키는 결정적 비결이었다.

일반인들은 쉽게 체험하지 못하는 오지를 연예인들이 직접 찾아가 살아보는 방송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남극’에서 족장 김병만이 남극점 베이스캠프 영하 29도의 추위에 카메라가 뽐뽐 얼어붙자 온몸으로 느끼는 한기에 뜨거운 물을 뿌리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물이 얼어붙었고 김병만은 “겨울왕국의 엘사는 남극에서 뜨거운 물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큰 웃음을 샀는데, 이것이 바로 ‘음페바 효과(Mpemba effect)’

음바페 열풍과 음페바 효과

(프랑스 축구선수)

(뜨거운 물이 더 빨리 냉각되는 현상)

이다. 오랜 시간 동안 물리학의 난제 중 하나였던 이 효과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어는 현상’으로 일반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엄연히 주위에서 관측되는 과학적 현상이다. 굳이 수소결합이니 공유결합이니 하는 전문 용어도 필요 없다. ‘많은 에너지를 축적한 뜨거운 물이 냉각할 때 더 빠르게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빨리 언다’는 이 과학적 현상을 교조적 수단으로 활용해 금방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냄비 근성을 비판하거나 ‘뚝배기처럼 식지 말고 꾸준해지자!’는 틀에 박힌 결론으로 마무리 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다”(마 19:30)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한 파동으로 느껴질 뿐이다.

“나는 네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낼 것이다”(계 3:15~16).

지리학적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Laodicea)는 금, 옷, 안약 제품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던 반면 물 사정이 썩 좋지 않았다. 그래서 수로를 통해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차가운 음용수를 끌어왔고,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다. 그런데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로 변했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토를 유발시켰다.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유익을 주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유익을 주지만 이도저도 아닌 자세를 취하는 ‘미지근함(lukewarm)’은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었다.

문 밖에서 있는 예수님 성화로도 유명한 구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계 3:20)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자신들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준엄한 경고이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신앙으로 스스로 부요하다고 안주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구토유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 견고한 믿음과 옳은 행실과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 첫사랑을 회복하는 수밖에.

두란노 신간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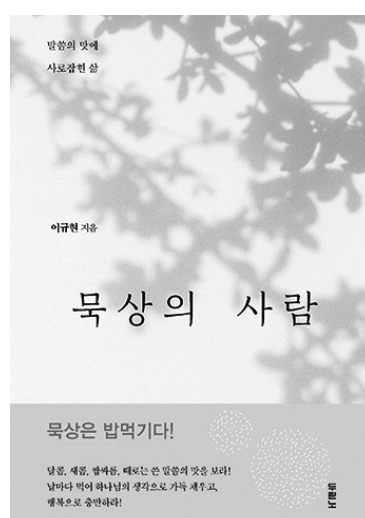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
팀 켈러 저 | 두란노 | 15,000원

만 주어진다고 말했다. 결국 구원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이 유일한 복음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장한 교리는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매 순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고차원적인 지식과 교리만을 추구하고 있다. 복음을 비신자들이 교회에 입문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교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는 책이 한 권 나왔다. 팀 켈러 목사가 펴낸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가 아니라 전부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직 행위(율법)로 구원받으려 했던 갈라디아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달랐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율법)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방법



<묵상의 사람>
이규현 저 | 두란노 | 13,000원

내용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다. 묵상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록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리된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체가 될 때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지만 그 노력 속에 진리가 담겨야 한다. 진리가 없다면 내면이 공허해지고 결국 삶이 빈궁해진다.

이규현 목사는 <묵상의 사람>에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기도하기, 성경읽기, 관찰하기, 질문하기, 상상하기, 기록하기, 적용하기, 마무리 기도하기 등을 제시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을 때는 천천히 정독해야 한다.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참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다보면 성경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또 말씀에 나와 있는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 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자)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IT인들을 위한 세미나

일시: 7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가로수위실 (강남구 압구정로 10

길 43 엘모아빌 빌딩 지하 2층)

강사: 24일 김경훈 전무(구글코리아)

31일 김만희(축복의 사람)

문의: 02-3215-3651

CMN 추석 캄보디아 아웃리치

일시: 9월 20일~27일

비용: 50만원(항공비 별도)

사역: 의료 및 어린이사역

문의: 김경아 간사(010-8983-3520)

김포 M센터 토요 활동 교사 모집

시간: 10시 30분~12시 30분

장소: 김포 M센터

대상: 유치부와 1학년

문의: 민경호 선교사(010-2997-4347)

샘물중고등학교 및 은혜샘물초등학교

교, 더샘물학교 교직원 모집

샘물중고등학교: 물리(공통과학), 수학,

회계

은혜샘물초등학교: 음악(파트)

더샘물학교: 회계, 파트교사(음악, 체육,

중등 영어)

자세한 내용은 www.smca.or.kr 참고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어진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맞춤특강

나침반

다양한 분야의 명사특강을 통해
크리스천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통일’과 ‘차세대’를 주제로 나누는 나침반 강연
매주 월 / 화 오전 8시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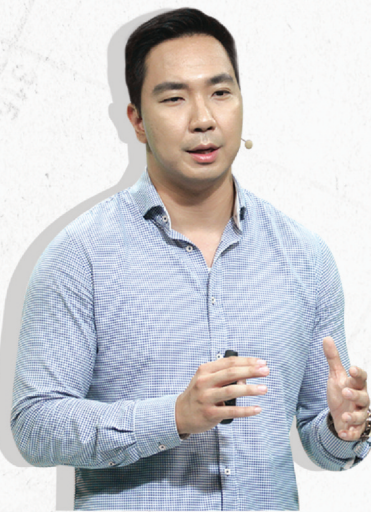


임현만 교수 (백석대학교)
‘마음 치유를 통한 복음 통일’

방송: 7월23일 월요일

임신화 이사장 (꿈고래놀이터)
‘발달장애와 공동체’

방송: 7월24일 화요일



폴 손 대표 (QARA)
‘청년의 시간, 소명 발견하기’

방송: 7월30일 월요일

윤은성 목사 (어깨동무사역원)
‘삶을 바꾸는 만남’

방송: 7월31일 화요일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